

기 념 사

모시고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암성사께서 해월신사로부터 도통을 전수받아 천도교의 제3세 교조가 되신 지 117주년이 되는 인일기념일입니다. 다시금 의암성사의 마음을 생각하며 올 한 해를 돌이켜보고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는 날입니다.

의암성사는 포덕 2(1861)년 충북 청원군에서 탄생하시어 세상의 혼탁함이 극에 달하고, 청운의 뜻을 펼칠 길이 없는 시대상을 개탄하면서도 세상을 구할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갈구하는 젊은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보국안민과 만인평등의 새 세상을 구할 길이 동학에 있음을 알고 입도하신 후로, 하루 주문 3만 독의 독공(篤工)으로 용맹정진하셨습니다. 이로써 의암성사의 입도할 때의 그 마음, 보국안민과 광제창생의 포부와 희망은 순도하는 그날까지 일이관지한 화두가 되었습니다.

10여 년간의 수련과 포덕 활동의 결실로 해월신사의 수제자

반열에 들어선 직후인 포덕 35년에, 의암성사는 해월신사의 특명에 따라 북접 통령이 되어 우금치 전선으로 달려가셨습니다. 혁명의 최대 고비이자, 그동안 동학농민군들이 겪어 보지 못하였던 고도의 신식 무기의 화력 앞에 수많은 희생자를 내면서도 싸움을 거듭하던 의암성사는 마침내 동학군을 해산하고 해월신사를 보필하여 도의 앞날을 도모해 나가셨습니다. 숭한 죽음의 고비를 넘고 엄동설한의 칼바람 눈보라 속을 헤매면서도 성사님의 오로지 한마음은 무극대도를 널리 펴서 세상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포덕 37(1896)년 해월신사는 의암성사의 그 성품을 더욱 길러가도록 당부하시며 의암이란 도호를 내리셨습니다. 마침내 포덕 38(1897)년 의암성사는 해월신사로부터 도통을 전수받아 천도교의 3세 교조가 되시었으니, 이날은 무극대도가 한울님의 덕화와 더불어 겹희(劫灰)를 벗고 새로운 시대로 진입하는 첫날이 된 것입니다. 외유를 통하여 시대의 큰 흐름을 살피시고, 동학을 천도교로 대고천하 하시어 용시용활의 지혜와 용기를 발휘하셨으니, 이는 오만년 무극대도의 기틀을 튼튼히 마련하신 영단이었습니다.

의암성사의 의(義)는 나라와 백성을 구하는 정의(正義)로 실현되었으며, 후천 오만년 무극대도의 장래를 기탁하신 스승님의 말

스름을 끝끝내 지켜내신 신의(信義)로 실천되었으며, 세상 만물을 살리는 생명의 정의(情義)로 드러나셨으며, 도의 기틀을 바로 세우시고 그 뜻을 펼쳐나가는 도의(道義)로 나아가셨으며, 동학을 천도교로 대고천하 하심으로써 후천개벽의 공의(公義)를 선포하셨으니, 후천의 인황씨(人皇氏) 의암성사의 명실상부한 성인되심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이미 가속도가 붙어 지구촌 전체에 엄습한 제국주의 열강의 거대한 해일 속에서, 일제의 강점에 국권이 일시 겸제되는 고통을 겪어야 하였으나, 채 10년도 지나지 않은 포덕 60년에 3·1운동을 거국적으로 영도하시어, 민족사는 물론 동아시아 역사, 나아가 세계사에 길이 빛나는 인류 공영의 대의를 지극히 밝히셨으니, 시련 속에서 더욱 뚜렷이 드러나는 그 민족자주, 세계공영, 생명평화의 3·1정신은 면면히 우리의 앞길을 밝혀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3·1운동 100주년을 앞두고 여전히 민족통일이라는 과제를 앞에 두고 있으나, 이는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시련으로써, 민족의 통일 완수가 곧 3·1운동의 최종 귀결점이요, 그로부터 구현되는 새로운 나라는 십이제국의 괴질 운수를 일거에 타파하고도 남을 위대한 후천개벽의 대 선언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의 큰 그림이 의암성사께서 영도하신 3·1운동의 정신 속에 이미 깃들여 있으니, 우리는 오늘 의암성사 승통기념 일을 맞으며 그 뜻을 마음속에 더욱 깊이 아로새기고 그 염원을 온몸으로 받아 안아 실현해 나가기로 굳게 심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때마침, 지난 12월 초순 국회 본회의를 통하여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을 준비하기 위한 지원을 천도교단에 하는 것이 결정되었습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남다른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백년 중일변의 큰 기틀이 이로써 시작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교단은 동학농민혁명 120주년 행사를 힘겹게, 그러나 의미 있게 전개하였습니다. 올해 기념사업의 핵심 기조는 한마디로 해월신사의 총기포령을 받아 의암성사께서 영도하셨던 동학농민혁명의 전국화와 세계화와 미래화라는 가치를 재조명하고 그 비전을 새롭게 가다듬는 것이었습니다. 올해의 성취는 그것을 전적으로 구현하였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그 본질을 뒤덮고 있던 편견과 편중과 편파의 두께를 걷어내고 비로소 본연의 모습을 찾아가는 출발점을 올바르게 그었다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새해는 3·1운동 100주년 준비를 위한 실질적인 원년이 될 것입니다. 동학농민혁명 정신의 지속적인 현창과 더불어 3·1운동 100주년을 준비하는 과정은 민족통일이라는 문명사적

과제를 성공적으로 이룩해 내는 두 개의 바퀴가 되어 힘차게 굴러나갈 것입니다. 이 일들은 천도교단만의 사업이 아니라, 전 민족적 사업이 될 것이며, 정치경제적인 문제나 역사적 과제의 해결만이 아니라, 동학 천도교의 역사관이 제시하는 백년 중일변의 인류사적인 전환을 가져오는 대 과업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동학혁명과 3·1운동을 영도하시고 당신의 온 몸을 불살라 그 정신에 영원무궁의 생명을 불어넣으신 의암성사의 성령출세를 위하여 우리 후학이 해 나가야 할 최선의 과제라고 할 것입니다.

전국의 천도교인 여러분!

이 시점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실사구시의 정신입니다. 우리에게 돌아오는 시운이 이처럼 밝고 희망차다고 해서, 그 성취가 저절로, 그리고 필연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한울님이 뜻을 두면 세상 사람들이 얼핏이 알아내는 것은 천리이지만, 한울님은 언제나 사람들이 인사(人事)를 다하기를 기다려 천명(天命)을 완수하시는 것도 또한 어길 수 없는 진리인 것입니다. 아무리 순풍이 불고, 앞으로 나아가며, 흐름을 따라가는 길이라 해도 몸을 실을 배를 스스로 마련하지 못하면 하염없이 흘러가는 세월을 바라만 보고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의암성사께서 후학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시기를 “앞길에

더욱 어려움이 많으리니 뒷일을 어진 이에게 맡기노라(前程益多艱 後事任諸賢).” 하셨습니다. 멀고 험한 길을 끝까지 가는 법은 함께 가는 것이며, 덕을 베푸는 자만이 외롭지 아니합니다. 나와 함께하는 동덕은 나의 은인이며, 이 시대 이 땅에서 함께 살아가는 세상 사람은 우리의 성공을 기뻐하고 향유하실 은인입니다. 나와 우리의 덕과 지혜를 어떻게 베풀어 세상 사람을 이롭게 하고 기쁘게 할 것인지를 생각하는 것이 의암성사 승통기념일을 뜻깊게 맞이하는 최선인 방법인 것입니다.

세상을 돌아보고, 사람들의 말에 귀기울여 보면 시운은 천도교 시대의 재흥을 예견하고, 인심은 동학사상의 대안적 비전을 기대하고 있는 것은 명명백백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관심과 사람들의 마음이 다시 개혁의 비전을 향하고 있다는 것은 선천 악기(惡氣)의 팽만함이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고비를 넘어 새로운 생명의 땅으로 갈지, 고개 마루를 넘지 못한 회한을 또다시 남길지는 정해진 것이 아니라, 똑같은 가능성으로 우리 앞에 놓여 있으며,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이러한 때를 맞이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돌이켜보면 과연 천명과 천운을 수용하고 수행할 몸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느냐를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 이치가 기회라는 열매는 위기라는 나무 위에만 피는 법이요, 씨 뿌리지 않고 거두는 법은

없다는 것임 잊지 말아야 함을 새삼 되새깁니다.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고, 덕을 천하에 퍼는 것도 지금 여기서 만나는 동덕, 교당 밖을 나가면 만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덕을 퍼는 것에서부터 시작함을 깨달아 실천하는 그 순간이, 우리 시대 현도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한편으로, 올 한 해 동안 뿌려 놓은 수많은 씨앗들이 춘삼월 호시절을 만나 돌아날 날이 머지않았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할 일은 언제나 한가지입니다. 스스로 단련하고 마음을 하나로 하는 것이니, 한편으로 공부하며 한편으로 동귀일체 하여 법의 걸음을 걸어 나가는 것만이 스승님의 마음을 오롯이 계승하고 스승님의 가르침에 어김이 없는 천도교인다운 걸음이라고 할 것입니다.

오늘 의암성사 승통 제117주년을 맞아, 의암성사님의 거룩한 성덕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마음을 고하면서, 동덕 여러분과 세상 사람들에게 한울님과 스승님의 덕화가 두루 감응하시기를 심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포덕 155(2014)년 12월 24일

교령 박 남 수 心告

기 념 송

1. 천 - 은 이 망 극 하 여 경 신 사 월 초 오 일 에
 2. 한 - 울 님 하 신 말 씀 개 - 벽 후 오 만 년 에
 3. 나 도 성 공 너 도 득 의 너 희 집 안 운 수 로 다

1. 글 로 어 지 기 록 하 며 말 로 어 지 성 언 할 까
 2. 네 가 또 한 침 이 로 다 나 도 또 한 개 벽 이 후
 3. 이 - 말 씀 들 은 후 에 심 - 독 희 자 부 로 다

1. 만 고 없 는 무 극 대 도 여 몽 여 각 득 도 로 다
 2. 노 이 무 공 하 다 가 서 너 를 만 나 성 공 하 니
 3. 무 극 대 도 닦 아 내 니 오 만 년 지 운 수 로 다

후렴

기 장 하 다 기 장 하 다 이 내 운 수 기 장 하 다

중 을 시 고 중 을 시 고 이 내 신 명 중 을 시 고

인일기념가

오 늘 인일기 념의 날 인 일-기 념의 날

천 도 승통의 사-명 성 사에게 내리 시 니

아 동 방하 늘 영 롱히개 이어 후-천-개 벽에

현-도의이아침 이 르 도 다

창생들아 다같이 이 - 날 을 즐 기 세 성 사 의

높 으 신 덕 질 이 빛 날 이 아 침

<의암성사 약력>

- 포덕 2년(1861) 4월 8일 충북 청원군 북이면 대주리에서 탄생
- 포덕 23년(1882) 東學에 입도
- 포덕 35년(1894) 해월신사(천도교 제2세 교조)의 명에 따라
전봉준 장군과 같이 동학혁명을 지도
- 포덕 37년(1896) 해월신사로부터 의암(義菴) 도호를 받음
- 포덕 38년(1897) 12월 24일 해월신사로부터 道統 전수
(천도교 제3세 교조 되시다)
- 포덕 42년(1901) 일본에 계시면서 국내 청년 64명을 선발
일본에 유학시켜 인재를 양성
- 포덕 45년(1904) 국내개혁을 목적으로 동학교도로써 진보회를 조직
'단발흑의'의 갑진 개화혁신운동을 전개
- 포덕 46년(1905) 동학을 천도교로 대고천하 하고
천도교대헌 및 궁을기 제정
- 포덕 47년(1906) 일본에서 귀국, 천도교중앙총부를 설립함과 동시에
72개 대교구 설치
9월에 일진회 가담 친일두목 62인을 출교
- 포덕 51년(1910) 보성학원(보성전문, 중학, 소학) 인수,
「천도교회월보」 간행
- 포덕 53년(1912) 우이동에 鳳凰閣을 건축,
지방두목 483명을 7회에 걸쳐 수련
- 포덕 60년(1919) 3월 1일을 기하여 민족을 영도, 독립운동을 전개
- 포덕 63년(1922) 5월 19일 옥고로 순도순국 하시니 향년 62세.